

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

보 도 자 료

http://www.balance.go.kr

http://www.opm.go.kr

2021년 12월 16일(목) 14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	배포일시	2021. 12. 16.(목)	담당부서	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
	담당과장	이벼요 다다과(02 2100 1124)		

국가균형발전위원회-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세미나 개최 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맞잡은 두 손

- 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연계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 개최 -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년 참여...청년 목소리 정책 반영 검토
- □ 국가균형발전위원회(위원장 김사열)와 국무조정실(실장 구윤철)은 12.16일 (목) 오후 2시, 서울 소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(이하 균형위)-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청조위)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.
 - 이번 세미나는 '청년정책과 국가균형발전 과제'를 주제로 청년과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연계하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균형위와 청조위가 협력한 첫 사례이다.
- □ 그동안 균형위는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위하여 10회 이상의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했다. 청년의 지역 정주와 일자리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, 오늘의 세미나를 청조위와 공동 개최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청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.
- □ 오늘 행사에는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과 이승윤 청조위 민간 부위원장을

비롯한 양 위원회의 위원과 지역청년 등 약 30명이 참여했다.

- 또한, 행사 내용은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 송출 하여 실시간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.
- □ 이날 세미나는 지민규 청조위 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,
 - 이승윤 청조위 민간 부위원장은 '지역 격차와 청년세대 내 불평등'을, 송수종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'청년고용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'을, 지민준 대구 청조위 위원은 '국가균형발전과 청년정책 패러 다임의 대전환'을 각각 발제했다.
 - 이승윤 민간 부위원장은 지역 격차가 청년의 일자리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,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다른 연령층보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.
 - **송수종 연구위원**은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·인재 양극화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으며, 지역대학 재정지원 확대, 대학설립요건 규제 완화,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.
 - 지민준 위원은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,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(30% → 70%), 대규모 투자를통한 비수도권 인재양성 등을 제안했다.
- □ 발제가 끝난 후에는 청조위의 강보배 위원, 정서원 위원, 기현주 위원과 균형위의 김태은 위원, 홍채은 위원 그리고 황수민 한국청년스타트업 협회 사무처장 등이 함께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.
 - 토의는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이 직접 진행을 맡았다.
- □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"앞으로 청년이 주도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"을 강조하며 "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위, 저출산·고령사회위 등의 국정과제 위원회들과도 연계·협력할 계획"을 밝혔다.

- □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"청조위-균형위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"면서,
 - "오늘 여러분께서 **제안해주신 사항**들은 정부가 잘 듣고 **청년정책에** 반영될 수 있도록 **심도있게 검토**하겠다"고 밝혔다.

공동세미나 홍보포스터





